

연중 제 II 주일

기도서 371면 (C해)

제1독서: 2사무 12, 7-10
제2독서: 갈 라 2, 16, 19-21
복 음: 루 가 7, 36-8, 3
후 7, 36-50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다. 평안히 가라

(루가 7, 50).

□ 강 론

깨달음과 못깨달음

오늘의 복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즉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
는 사람들"(루가 18:3)과, 자기 도취에 빠져 주님으로
부터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의 힘으로 이룩한 공로(?)로써 구원을 얻으리라는 환상
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구차
한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오늘의 복음에서 나오는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바로 그
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고 생각하며 더이상 하느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업신여긴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멀
리 떨어져 죄를 짓고 저주받을 행동속에서 살아온 이 여
자는, 참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
상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므로써, 그녀
는 주님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부끄러움도 체념도 없
이,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서슴
없이 들어가 주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 지난 죄를 뉘
우치는 한없는 눈물과, 새롭게 솟아나는 사랑의 생명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뉘뉘벅이 되어 예수님의 발을 적셨
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았으며,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사이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고 편협하고 웅졸한가? 그는 예수
님을 초대하기는 했으나, 사랑과 존경심이나 믿음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험하는 태도에서였다. 그러기에
그는 초대한 손님에게 응당 대우해 드러야 할 존경이
나 환영의 표시를 보여드리지 않았다. 즉 발도 씻겨드리
지 않았으며 우정의 입맞춤도 없었고 잔치상에 나가기
전에 예의표시로써 발라드렸어야 할 향유도 거절했던 것
이다.

그것은 마치 믿음에 익숙한 자들이 주님께 응답히 바
쳐야 할 예의를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거절하는 태도와
도 같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
는가를 알았으며, 예수님은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
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부끄러움도 잊고 예수님 앞
에 무릎을 꿇고 그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
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나서 그 발에 입
을 맞추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미에
서도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바리사이와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달려진 마음에 대해, 많이 빛진자와 적게
빛진자의 돈을 탐감해 준 인자한 주인의 예화를 들려주
신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는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
은 죄를 용서받았다."



월남이 주는 교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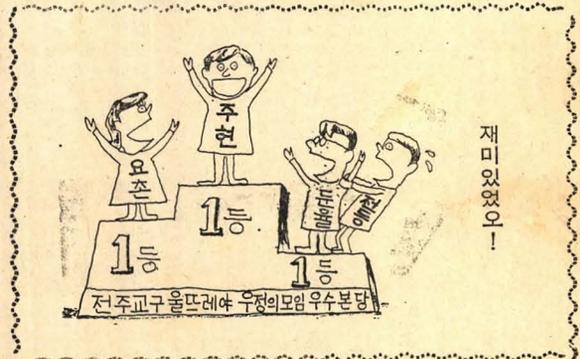
불난 것과 싸움하는 것은 구경할만 하다고 하는 우스
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영화를 좋아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무
리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프로 권투나 레슬링 등의
격투기도 그렇다. 하기가 구경꾼들에게는 쌓여있는 찌꺼
기(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같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은 대학
생들과, 같은 또래인 전경들과의 맞섬이다. 구석기시대
의 투석전에서부터 방패를 든 중세기의 모습하며, 일지
매와 같은 복면차림과 방독면의 만남. 누가 이 젊은이들
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가! 이들의 대치는 불만한 구경
거리도 물론 아니고,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영
화의 한 토막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더하게 해주는
비극적인 모습이다.

왜 이 시대에는 최루탄으로 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 대학생들 나무라는 대학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도
그 원천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자. 「정치 문제점-그
래서는 안된다는 의사표시(테모)-저지하는 최루탄-돌
과 화염병」, 이 악순환을 먼저 슬퍼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정치 지도자나 정부 당국자
들은 우선 젊은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좌경이라고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젊은이들도 더 이상, 아무리 정당방위라고는 하
지만, 힘으로 맞서지 말자. 힘과 힘이 부딪힐 때 남는
것은 파괴뿐이다. 월남처럼 죽 썩어서 개 좋은 일은 시
키지 말자. 그리고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잊지 말자.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
며.

숨 정 이 산책



제1차 사목회 임원연수를 마치고

이 주 철

지난 6월8일 가톨릭센터에서 교구 평협(회장 김인협) 주관으로 본당 사목회 신설후 처음으로 임원교육이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10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말은 분야를 가름하기도 어렵고,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평신도의 사도적 역할이 절실한 시점에 참으로 기대가 큰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한다”(교회헌장 4장 33조)는 평신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평신도의 위치를 부각시키어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복음적 삶이기를 천명한 공의회가 가르침을 되새겼으며, 그리스도께서 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와 한패가 되셨는지를 알게

하는 교육이었다.

농번기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31개본당에서 93명이 참가했는데 김현철 신부님(평협 지도신부)의 말씀의 전례, 지정환 신부님의 사회복지분과, 문규현 신부님의 구역분과, 김준호 신부님의 홍보분과, 이갑진씨의 애령분과 위원회의 소명과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에서는 분과별로 사도적 활동의 문제점과 자랑거리 사례를 교환하고 개선점과 능동적 활동방법 등올 토의한 후 전체가 다시 모여 종합 발표로 진행되었다.

약 4년만에 이루어진 연수였지만 주교님의 흐뭇해하시는 격려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모임은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평협 사무국장)

□성서교실 ㉟

돈놀이꾼은 그들의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 두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루가 7: 42).

「용서받은 죄많은 여자」 이야기 가운데 「두 빛진 자」 비유가 나온다. 루가복음의 이 대목(7: 36~50)은 마태오복음(26: 6~13)과 마르코복음(14: 3~9) 및 요한복음(12: 1~8)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죄많은 여자」는 예수가 7마귀를 쫓아낸 막달라 여자 마리아(마르 16: 9, 루가 8: 2)이다. 성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이 「빛진 자」의 비유는 시몬의 집에서 일러진 것이다. 시몬은 예수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고, 예수도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다. 초대를 받고 예수가 음식을 먹는 동안 행실이 나쁜 여자가 예수 몸에 손을 대었다. 이것을 본 시몬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시몬의 얼음장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리가 없었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가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外)적인 형식(形式)을 중요시 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예수는 시몬이 알지 못했던, 먹어야 할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의 사랑은 예수에게 있어서 시몬의 「축제 행사」 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찾던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사랑의 마음없이 그저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두 사람은 빛을 갚을 길이 없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 전(全)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롬 3: 23). 그래서 인간은 문질주에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만 것이다(출애 12: 13). 「용서」는 죄인들의 「빛」에 대한 하느님의 은혜로운 「탕감」이며 「치료」인 것이다. 하느님의 「용서」 속에는 우리는 언제나 「초범」(初犯)이다.



☆ 대입 종합반 · 단과반
감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병난방시설 완비)

全州 英中學院

조흥은행 앞 개 강: 7월 1일
☎ 82-3537

성인병 치료의 신약 영지
※ 직접 참나무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함열 영지 농장

함열읍 와리 동지부락
(마을회관 뒤)
전화 (0653) 6-1107
한 상 현(요셉)

김안과의원(이리)

(부설: 콘택트렌즈)

원장 김 코르넬리오
조 모니카

전화 이리 54-8600

이리 제일은행 앞
서독안경원 2층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신품전주교회**: 22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이리 기독교방송 가톨릭시간 안내**: 매일밤 12시30분, 금주 방송담당-최상범 신부님
- 2. **교구 혼인법원**: 18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사목국
- 3. **사제 평의회**: 20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4. **본당 사목회 분과위원장 교육**: 22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3천원(자료제공), 참가대상-선교분과·여성분과·청소년분과
- 5. **성소자 모임**: 22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일반 신자
- 6. **사제 어머니모임**: 20일 낮 1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사제관(웃놀이 있음)
- 7. **주소안내**: 박인호 신부님
 Rev. Pietro Pak
 Vivaio (Scuola Sacerdotale)
 Via S. Francesco 4.
 50064. Incisa Valdarno
 Firenze ITALY ☎ 055-83-35-731

☆ **축! 영명**: 21일 성 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가정기도 독서: 시편 65: 17~19 복음: 루가 6: 46~49

라디오 베리파스 한국어 방송안내

주파수: 오전 9.740MHZ/9.585MHZ, 오후 9.505MHZ/11.830MHZ

방송시간: 오전 7시~7시25분 · 오후 9시30분~9시55분

오	전	요일	오	후
바로 지금입니다(재) 말씀과 함께 하루를		월	베드로의 꽃단배 베리파스 뉴스	
청취자 코너(재) 말씀과 함께 하루를		화	세계는 한 형제 세계 가톨릭 소식	
베드로의 꽃단배(재) 말씀과 함께 하루를		수	이 땅에 평화를 베리파스 뉴스	
세계는 한 형제(재) 말씀과 함께 하루를		목	삶을 노래하며/생명의 양식 세계 가톨릭 소식	
이 땅에 평화를(재) 말씀과 함께 하루를		금	바로 지금입니다 베리파스 뉴스	
삶을 노래하며(재)/생명의 양식 말씀과 함께 하루를		토	청취자 코너 베리파스 뉴스	
주님과 함께 한국 가톨릭 소식		일	주님과 함께 한국 가톨릭 소식	

라디오 베리파스 한국어 방송 주소

국내: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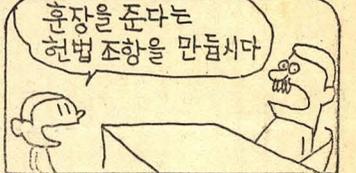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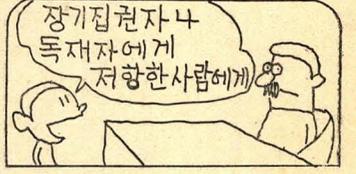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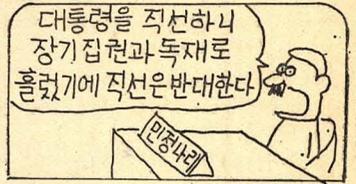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라디오 베리파스 아시아 한국어방송

필리핀: Korean Service, Radio Veritas
 P. O. Box 939, Manila, Philippines

방송담당자: 김태운 · 박성팔 신부

김영숙 수녀 · 오경길 수녀 (성바로 여자 수도회)

요심이 (671) 김병오



(고도의 정신 및 두뇌활용법)

정신과학 무료세미나

일시: 6월 16일(월) · 6월 19일(목)

시간: 오후 2시 · 7시 (2회)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3층 대강당

주최: 한국 정신과학연구회

※ 신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MISUNG
美米星
 HANOSAG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 · 여행용가방 · 007
 가방 · 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겸(글라라)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의사 산부인과전문 의 황수경

이승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솔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곧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과 사제양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조합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령세미나 비디오(후편) 상영: 21일 오후 5시 (특전미사 직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사목회 상임위원회: 18일 저녁미사 후 모임장소-본당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유사-이수용 부회장님,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모내기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참 바쁜 농촌에 사랑의 손길을 주신(지난주)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담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1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9. 금주전례: 해설-이종관, 독서-봉헌-전태권 부부 신자기도-박상규 부부, 촛불봉헌-조흥기 부부
 - 차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봉헌-임철환 부부 신자기도-김진희 부부, 촛불봉헌-국용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6,520원 교무금: 231,000원
지난주 신축금: 17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참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유아세례식: 19일 오후 2시
 2. 예비자교리(일반): 17일 성지순례 관계로 16일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
 3. 레지오 옥외행사: 충남 영보리 연풍성지 순례, 17일-오전 6시30분, 본당으로 집결바람(시간 엄수) 도시락·복주 지참
 4. 제2성당 신축건립을 위한 참가팀, 국수판매를 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바람
 5. 교무금 납부: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2성당 신자들은 주일미사때 납부바람
 6. 사제양성후원금 신입자: 1구과-최가브리엘라·김강미·일금자·차진석·이문자·배복래·이정빈
 7.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8. 금주봉헌: 본당-김환용 부부, 2성당-오상팔 부부
 - 차주봉헌: 본당-진성복 부부, 2성당-박창주 부부
 9. 차주전례
본당: 해설-고복근, 독서-①조성웅 ②강기호
- 지난주 봉헌금: 본당-288,985원, 2성당-117,600원
계-406,585원 미수금: 38,000원
교무금: 194,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8시30분
 2. 평화의모후pr 주최 1,000차 축하행사: 18일 어머니미사 후
 3. 옥외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부녀회: 19일 오전 10시 미사
 5. 재속형제회: 다음주일 오후 2시
 6. 병자성사: 19일·20일 오후
 6. 유아세례: 21일 오후 7시30분
 8. 원장수녀님 피정: 16일~25일
 9. 제대회 임원명단: 회장-정유귀, 부회장-곽태희, 서기-허정애, 회계-고정숙, 수고하시겠습니까
 10. 감사: 중·고학생회 체육대회에 수고하신 모든분에게
 11.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정진희 ②유영귀
봉헌-육태수씨 부부
 - 차주전례: 해설-김경자, 독서-①강기연 ②안철조
봉헌-안운정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5,240원 교무금: 426,650원
해익선교 2차헌금: 151,57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본당 사목회분과위원장 교육안내
15일-재정·교육·전례분과
22일-선교·여성·청소년분과
- 지난주 봉헌금: 964,140원 2차헌금: 391,480원
교무금: 381,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미사시간 변경안내
일요일: 5시30분-새벽미사, 9시-학생·노인미사,
10시30분-공식미사, 저녁 8시-저녁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미사, 저녁 8시-특전미사
월·목요일-새벽 5시30분, 화·수요일-저녁 8시
금-오전 10시 어머니미사
※ 화요일 지성인교리-저녁 8시30분
※ 6월 16일부터
 2. 성령쇄신 피정
①기간-6월 24일~27일 오전 10시~12시30분
②선착순-100명
③지도-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④접수-본당 사무실(회비 2천원)
⑤준비물-합본성경·가톨릭성가
 3. 전례연구위원 모집: 가톨릭 전례를 깊이 연구하고 봉사하실 분
 4. 주부 섬서대학: 18일 10시, 메시아 사상
 5. 사목방문: 17일 오전 10시, 106~110동
 6. 모임: 울뜨레아-오늘 저녁 8시30분-본당 사무실, 성모회-공식미사 후
 7. 감사헌금: 정루시아-3만원
- 지난주 봉헌금: 736,270원 교무금: 362,0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본당 울뜨레아: 18일 저녁
 2. 우정의날: 25일 저녁
 3. 유아영세식: 25일 저녁미사 중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4. 주일미사: 절대 빠지지 맙시다
- 지난주 봉헌금: 114,480원 교무금: 44,000원
선교사 특별헌금: 40,370원